

# Spinoza의 윤리설에 관한 고찰

— 가치의 원리를 중심으로 —

이 희 주

— 목 차 —

- I 문제의 제기
- II 가치의 상대성
- III 가치의 보편성
- IV 비 판

## I 문제의 제기

Spinoza (1632~1677)의 <윤리학>은 영원성과 무한성을 찾으려는 인간지성이 간절한 소망의 결정(結晶)이며, 인간의 이기심에서 오는 고통과 불행을 해탈하려는 윤리적, 종교적 수요(需要)에서 출산된 것이다.

인간의 마음은 무상하고, 일시적이며, 멸하기 쉬운 곳에서 떠나 사람이 애착할 영원하고 무한한 대상을 발견하고, 우리의 정열과 사랑을 다하여 진력해야 할 최선의 인생에 대한 이상을 밝혀주려는 진지한 철학적 성찰의 소산이다.

그러므로 Spinoza의 사상체계는 방대하다. 그의 주저 Ethics<sup>1)</sup>는 형이상학으로 부터 출발하여 정과 의지를 다루는 심리학 지식의 타당성의 단계를 논하는 인식론, 끝으로서는 형이상학과 심리학에 의거한 윤리학을 논하고있다.

Spinoza는 철학적 성찰의 목표를 인간으로 하여금 무한성과 영원성을 발견하고 그 대상으로 진력하도록 하는데 두었으며, 인간들이 최선의 생을 향유하는 도덕적 생활의 향상에 있었다.

고로, Spinoza의 <윤리학>은 먼저 무한하고 영원한 대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야 한다. 무한성과 영원성의 탐구는 실재(Reality)의 본성과 구조를 구명치 않을 수 없으므로 그것은 형이상학의 탐구가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것이다.

또한 인간이 영원한 대상에 일심진력하여 애착 추구하도록 하려면 인성론적 탐구가 필요하

---

1) 1675년 완성, 출판은 사후, 영역으로는 Oxford University Press인 W. H. White의 번역이 가장 좋음.

다. 인간성을 수양하기 위해서는 인간의 본성을 상세히 이해해야 하기 때문이다. 고로 필히 심리학의 탐구가 수반되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또한 인식론적 성찰이 요구된다. 영원성에 대한 사랑이라는 인간의 이상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지성의 모든 능력을 발휘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Spinoza의 <윤리학>은 형이상학, 심리학, 인식론을 토대로 하여 치밀한 조직성을 갖고 이루어진 방대한 사상체계이다.

그의 형이상학은 Decartes를 변형한 것이며, 심리학은 Hobbes를 연상케하는 점은 있으나 윤리학은 독창적이며 가치가 있는 것이다.<sup>2)</sup>

Russell은 지적인 면에서는 그를 능가할 철학자가 약간 있었겠지만 윤리적인 면에서는 그에 비할 자가 없다고 말할 정도로 Spinoza의 윤리사상은 가치가 있다. 비록 그 이론에는 찬성하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의 철학적 성찰의 심원성에 존경의 뜻을 갖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는 철학적 논술에 있어서 기하학적 방법을 채용했으며 최초로 정의(定義)를 말하고 다음에 공리(公理)를 들으므로 명제, 증명등의 순서로 전개했다. Spinoza의 <윤리학>을 처음으로 읽어보는 사람은 그 논리적 서술방법 때문에 난해하고 무미건조한 감이 든다.

Spinoza는 모범적 학문인 수학이 가지는 논리적 필연성과 명석판명한 관념에 의하여 윤리학적 문제를 천명하고자 한 것이며, 수학적 자연인식의 적확성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 것이다.

이리하여 Spinoza의 사상은 연역적으로 조직된 체계로서 제시되고 있다.

이 기하학적 형식은 그의 철학체계에서 극히 명석판명한 논리적 일관성을 나타내주는 듯 하나 그것은 그의 철학이 그 엄밀한 필연성에 있어서 기하학에 뒤지지 않는 것임을 표현하는 것은 아니다. 도리어 이 수학적인 간명한 형식이 논리적 모순과 결함을 돋보이게 하는 점이 있다. 그것은 기하학적 도형처럼 형이상학의 문제, 자연의 문제, 인간의 문제를 추상화하고 보편화 하기가 어렵다는 데에 원인이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Spinoza의 윤리사상을 살펴봄에 있어서 총체로 먼저 철학체계의 근간이 되는 원리와 그전체를 흐르는 정신을 포착해서 이해해야 할 것이다.

이상 열거한 Spinoza의 Ethics의 구조적 측면과 철학적 방법을 통해서 그의 윤리사상의 대체적인 구조와 방향은 제시된 셈이다.

이제 본논고(本論考)에서 구명코저하는 문제가 무엇임을 밝힐 때가 되었다. Spinoza는 유일한 세계인 자연에는 선악이 없고 오직 인간적인 입장에서 볼때 선악이 생긴다고 믿었다. 즉 선악은 사물에 대하여 인간이 느끼는 모종의 감정인 주관적 산물이라는 견해이다.

2) B. Russell;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merican-Stratford Press, Inc., New York, 1959, p. 569

만약 가치가 인간의 욕구와 관계없이 그 독자적 실재성을 가졌다는 입장을 윤리학적 절대론이라고 부른다면 그의 윤리설은 상대론이라 칭할 수 있다.

가치의 표준을 어떤 유정적 존재 (sentient beings) 의 욕구에서 구하는 윤리설은 필연적으로 사람의 개성에 따라 선악이 다른 윤리학적 상대론으로 도달하기 마련이다.

대표적인 예로서 Sophist의 윤리설은 인간의 욕구에 가치의 기준을 두었기 때문에 각 인간의 욕구하는 것은 선이요, 그 반대되는 것은 악이라는 주장이 나오게끔 되었다. 자기가 욕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가장 잘 판별할 수 있는 자는 자기자신이므로 선악의 가치판단은 개별적인 인간에게 달린 것이다.

그래서 Thracymachus는 “정의는 강자의 이해관계이다.” (Justice is the interest of the Stronger.)<sup>3)</sup>라는 극단적인 주장이 나오게끔 되었다.

대상의 가치가 주체의 마음가짐과의 관련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보는 윤리학적 상대론이 도달하기 쉬운 일반적인 결론은 보편적인 가치척도가 있을 수 없다는 그 것이다.

그러나 Spinoza는 윤리학적 상대론의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선악의 보편적 가치척도를 부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논고에서는 Spinoza가 가치의 주관성을 주장하면서 어떻게 도덕의 보편적 원리를 세우는가에 특히 중점을 두고 살펴보도록 하겠다.

## II 가치의 상대성

상술한 바와 같이 Spinoza에 의하면, 선악의 가치는 사물 그 자체의 객관적 성질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관적 욕구 내지 감정과의 관련을 통해서 생겨난다고 믿었다.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때 선악이 있는 것이지 객관적 대상 즉 자연계 그 자체는 선악을 초월한 것이요, 도덕적 가치의 세계와는 무관한 것 이라고 보았다. 그는 가치의 근원을 인간성에 두고 가치는 인간의 주관적 소산이라는 가치의 주관성을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와같은 Spinoza의 견해는 그의 형이상학적 성찰로부터 결과된 필연적 귀결이다. 그의 윤리설의 토대가 바로 형이상학인 만큼 가치의 기원 및 발생에 관한 그의 윤리학적 견해를 살펴 보는데는 먼저 그의 형이상학의 고찰로부터 출발하지 않을 수 없다.

Spinoza에 의하면, 이 세계는 무한한 대자연의 체계이다. 이 자연의 체계가 유일한 실체이요 동시에 신이다. 그밖에는 아무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는 거대한 자연의 체계 즉 하나의 실체만이 존재한다고 믿었고 그리고 그것은 막대한 생산

3) Plato: Republic, BK. I, 338 C. (Great Books, BK. 7, Encyclopedia Britannica Inc., Chicago, 1952, p. 301)

력을 가지는 생성의 원천이기도 하다. 이 체계안에서 여러가지 사물들이 생멸하며, 이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포함하며 (따라서 그것은 무한하다), 처음과 끝이 없고 (따라서 그것은 영원하다), 또 생산력을 가지고있다. 이 자연의 체계를 근원으로 삼고 “무한한 종류의 사물이 무한한 방식으로 생겨난다.”

〈From the necessity of the divine nature infinite numbers of things in infinite ways (that is to say, all things which can be conceived by the infinite intellect) must follow.〉<sup>4)</sup>

그리고 이 무수한 수요의 모든 사물들은 인과의 연속과정을 지배하는 자연의 규칙성과 제일성(齊一性)을 따라서 그리고 개별적인 유한한 존재들이 가진 자연적 구조의 상호의존성을 따라서 필연적으로 생긴다. 다시 말하면 무수한 사물들은 불변하는 인과의 법칙과 기존하는 사물들의 구조 및 상호관계의 제약을 받고 불가피하게 생긴다. 거기에는 우연이란 것이 없고 앞의 것을 따라 뒤의 것이 필연적으로 발생한다.

“자연에는 우연이란 것이 없다. 오직 모든 것이 숭엄한 자연의 필연성을 따라 일정한 양식으로 존재하고 또 변하기 마련이다.”

〔In nature there is nothing contingent, but all things are determined from the necessity of the divine nature to exist and act in a certain manner.〕<sup>5)</sup>

Spinoza가 좀더 자세히 밝히는 바에 의하면 자연은 어떤 의미로는 항상 불변하며, 또 다른 의미로는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는 이 두가지 의미를 능산적 자연(natura naturans)과 소산적자연(natura naturata)이라는 두개의 술어를 사용함으로써 확정시켰다.

「능산적 자연」이란 일정하고 한결같으며 항구적으로 확립된 원리에 의거하여 생기게 하는 생산적인 역량이다.

「능산적 자연」은 그 작용에 있어서는 비록 기동적이나, 그 작용은 항상 영원 불변하는 원칙을 따라서 발동한다.

다음에 「소산적 자연」이란 수동적이요, 일정한 순간에만 존재하는 자연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은 잠시 생겼다가 사라지는 사물의 상태이다.

우주의 각 순간의 상태는 시시각각으로 변동한다. 우주가 발현되는 무수한 개별적 상태의 현상을 Spinoza는 「우주의 얼굴」이라고 불렀다. 「우주의 얼굴」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그것은 논리적 필연의 법칙을 따라 생멸하는 무상한 현제상의 흐름이 기도하다.

4) Spinoza; Ethics, Pt., 1., Prop, 16, demonstr. (Great Books, BK. 31, Encyclopedia Britannica Inc., Chicago, 1952, p.362 이하 인용 같음)

5) Ibid, Pt., 1, Pro., 29, p. 366

「능산적 자연」의 법칙에는 절대로 변동이 없고 「소산적 자연」에는 끊임없는 변화가 있을 뿐이다.

유일한 실체인 이 우주를 자연의 체계라고 본다면 그 자연을 있게 하고 또 그렇게 만든 원인측에서 본 것이 「능산적 자연」이요, 결과적 측면에서 본 것이 「소산적 자연」이다.

「능산적 자연」과 「소산적 자연」은 동일체의 양측면으로서 전혀 동일한 것이다.

상술한 바에서 알수 있는 것 처럼, Spinoza의 유일한 실체인 자연은 필연적 법칙의 지배하에 있는 기계적 체계이며,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Spinoza의 세계에 있어서는 무엇을 기점으로 삼고 가치의 표준을 설정해야하며, 과연 가치의 근원은 무엇인가? 하는 점이 중요한 문제점으로 대두된다.

Aristoteles와 같이 이 세계가 목적론적 체계라면, 이 세계자체가 곧 가치의 원리를 내포한다.

Aristoteles의 목적론적 자연관에 있어서는 모든 「있는 것」이 「있어야 할 것」을 위한 과정적 존재이며 한층 높은 단계를 위한 질료 (matter) 인 까닭에 Reality의 세계는 곧 가치의 세계이 기도하다. Aristoteles에 있어서는 세계의 목적은 세계 밖에 있는 어떠한 초월적 존재가 정해준 것도 아니요, 그 안에 사는 어떤 유정적 존재가 정한 것도 아니다. 즉 세계자체가 본래부터 갖고 있는 것 이므로 그 목적은 그 세계에서 생기는 모든 사상 (事象) 의 가치를 평정하는 완전히 객관적인 표준이 된다. 그리고 그의 세계는 동일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는 까닭에 그 가치의 표준은 보편적인 타당성을 가졌다.<sup>6)</sup>

그러나 Spinoza의 유일한 세계인 자연은 목적이란 있을 수 없다. 목적이란 본래 노력의 대상을 뜻하는 것으로 의지의 개입이 전제되는 것이다.

그러나 Spinoza의 유일한 실체인 자연 즉 신은 의지가 없으며, 보통 우리가 뜻하는 지성도 없다. 그는 지성도 의지도 신의 성질에 속하지 않는다는 것이다.<sup>7)</sup>

Spinoza는 어떤 의미로는 사유는 실체의 속성 즉 신의 속성으로 신은 사유하는 존재라고 주장한 것이 사실이다.<sup>8)</sup> 그러나 「사유」 또는 「정신」이라는 말을 보통 쓰이는 것과는 다른 뜻으로 사용했다.

그는 유일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은 무한한 속성을 가지고 있으며, 그 속성은 자기 특수한 양태로서 항구적이며 무한한 신의 본질을 표현한다. 그러나 우리가 알수 있는 속성은 다만 사유와 연장의 둘 뿐이다.

연장은 신의 속성이다. 다시말하면 신은 연장을 가진 존재이다.<sup>9)</sup>

6)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서울, pp. 36-41 참조 Aristoteles: Metaphysics, 참조

7) Spinoza: Ethics, pt. 1, po. 17, Schol. 참조 pp. 362-363

8) Ibid., pt., II, pro. 1, p. 373

9) Ibid., pt., I, pro. 2, p. 374

정신현상은 사유가 나타난 양태이요, 물질현상은 연장이 나타난 양태이다.

그러나 「사유」와 「연장」은 원래 동일 실체의 속성이다. 물질과 정신은 성질에 있어서는 다르지만 실체상으로 본다면 전혀 동일하며 양자는 두개의 별물(別物)이 아니라 동일체의 두측면인 것이다. 연장면에 있어 물체로서 존재하는 것은 사유면에 있어서는 정신으로서 존재한다. 그와 반대도 또한 참이다.

모든 유한물은 신의 양태이기 때문에 동시에 사유와 연장의 상태이다. 연장의 상태는 개개의 개물이며, 사유의 상태는 개개의 정신이다. 그러나 사유가 취하는 우연의 형식은 즉 신의 관념이므로 Spinoza는 정신을 또 관념이라고도 하였다. 모든 개물은 신의 양태이기 때문에 물체일 수도 있고 정신일 수도 있다. 그러므로 우주간에는 정신적이 아닌 것은 하나도 없는 것이다.

Spinoza가 말하는 것은 하급동물이 이성적이거나 식물이 감각을 가졌다거나 또는 길가에 흩어져 있는 돌맹이나 시냇물에 의식이 있다는 뜻이 아니다. 그가 논하는 바는 자연계의 모든 존재에게는 두가지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진실로 이 두측면은 자연계 전반에 걸쳐서 보편적으로 존재한다. 이 두측면은 실체의 속성인 것이다.

위에, 서술한 일단의 논고에 의해서 Spinoza가 사유는 신의 속성 즉 신은 생각하는 존재라고 말했을 때 그 사유라는 뜻은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것이 밝혀졌을 것이다. 이점을 분명히 밝히기 위해서 그 자신의 말을 옮겨보겠다.

“Thought is an attribute of God, or God is a thinking. Individual thought, or this and that thought, are modes with express the nature of God in a Certain and determinate manner (corol. pro. 25, pt.1).

God therefore poseses an attribute (Def. 5, pt. 1.), the Conception of which is involved in all individual thoughts, and through which they are conceived.

Thoughts, therefore, is one of the infinite attributes of God which expresses the eternal and infinite essence of God(Def. 6, pt.1), or in other words, God is a thinking thing.’<sup>10)</sup>

Spinoza는 신에게 지성이나 의지 또는 그 밖의 모든 인간적인 특색을 인정하지 않았다. 길가의 무성한 잡초 또는 바위가 신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어진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인간도 신의 모형을 따라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모든 유한적 존재는 신 내지 자연안에 잠재하는 가능성을 예증하는 것이다. 그러나 어떠한 유한적 존재의 어떠한 특성도 신의 속성이 아니고 양태(modes)인 것이다. Spinoza의 신은 인간적이 아니다. 그것은 어떤 목적을 위하여 행동하지 않으며, 무엇을 인식하거나 지적행위를 수행하지도 않는다.

신이 인간에게 가진 관계는 그것이 다른 어떠한 유한적 존재에 대하여 가진 그것 보다도 대

10) *ibid.*, pt. I, pro. 1, demost. p.373

단할 것이 없다.

상술한 바와 같이 Spinoza의 세계는 오직 냉정한 자연의 체계이며,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은 필연적인 인과의 법칙에 따라 움직여 나아가는 기계론적 체계로서 이 세계전체가 노력의 대상으로 설정할 어떤 선천적 목적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Spinoza에 있어서는 Aristoteles의 경우와 같이 목적론적 관념을 통해서 가치의 표준을 정립할 수가 없다.

시냇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데로 흐르고, 봄이 가면 여름이 오고 하는 사시사철의 계절화 또는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고 고통을 피하고 하는 등이 모두 필연적 인과물에 따라 움직여나가는 것이라면, 이러한 세계는 좋음과 나쁨의 차별과 차등이란 있을 수 없다.

고로, Spinoza의 세계는 가치 즉 도덕의 왕국과는 무관한 세계이다.

기독교에서 주장하듯이 초월적인 인격신이 지, 정, 의를 가지고 우주의 구조와 양상을 창조해낸 것이라면 가치의 지평은 세계창조와 더불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러나 Spinoza의 신은 누차 강조해온 바와 같이 기독교적 전통의 신과 다르다. 그것은 비인격적 자연의 체계이다. 그것은 의지도 감정도 없는 까닭에 「좋은 것」과 「나쁜 것」의 구별이 없고, 옳은 것과 그른 것이 차등이 있을 수 없다. 그러므로 Spinoza의 신은 도덕적 가치의 원리를 부여해주지 않는다.

위에서 논해온 바를 요약해서 말한다면, Spinoza의 세계는 어떠한 선천적 목적도 주어진 바 없으며, 전능한 초월자가 인간에게 행위의 규범을 규정해준 바도 없다. 다시말하면 선악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목적론적 원리도 법칙론적 원리도 주어진 바 없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기준으로 시비선악을 가릴 것이며, 가치의 표준을 어디서 구할 것인가?

우리는 일상적 회화에서 「완전」이니 「불완전」이니 또는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평가적 발언을 사용한다. 마치 객관적 대상이 그러한 구별을 갖고 있거나 한 것처럼.

우리가 「완전하다」 또는 「불완전하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대상과 사태는 엄밀히 말해서 우리들의 계획과 의도에 따라 만들어진 인공품이나 인위적인 사태에 관해서만 적용될 수 있는 것이다. 예를 들면 집이나 어떤 가구가 자기가 설계하고 계획한 대로 어김없이 만들어 졌다면, 또는 어떤 사태가 자기가 의도한 대로 손색없이 이루어졌다면 그 물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그것을 의도하고 계획한 사람의 주관적 입장에서 볼때는 「완전하다」 또는 「불완전하다」라는 평가적 발언은 타당성을 갖는다고 하겠다. 그러나 인간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생겨난 자연물에 대해서 완전 또는 불완전이라는 말이 어떠한 객관적 실재성을 가진 것 처럼 생각하는 것은 부당한 관념이다.

그러므로 자연의 일부분인 인간에게도 완전한 인격이니 불완전한 인격이니 하는 따위의 평가는 객관적 실재성이 없는 주관적 견해의 표명에 불과한 것이다.

이점, Spinoza의 생각을 직접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If a man has proposed to be thing and has accomplished it, he calls it perfect, and not only he, but every one else who has really known or has believed that he has known the mind and intention of the author of that work will call it perfect too. For example, having seen some work (which I suppose to be as yet not unfinished), if we know that the intention of the author of that work is to be build a house, we shall call the house imperfect: while, On the other hand, we shall call it perfect as soon as we see the work has been brought to the end which the author had determined for it. But if we see any work such as we have never seen before, and if we do not know the mind of the work man, we shall then not be able to say whether the work is perfect or imperfect. This seems to have been the first signification of these words; but afterwards men began to form universal ideas, to think out for themselves types of houses, buildings, castles, and to prefer some types of things to others and so it happened that each person called a thing perfect which seemed to agree with the universal idea which he had formed of that thing, and, On the other hand, he called a thing imperfect which seemed to agree less with his typical Conception, although,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work man, it had been entirely completed, ..... Thus we see that the custom of applying the words perfect and imperfect to natural objects has arisen rather from prejudice than from true knowledge of them. For we have shown in the Appendix to the first part of this work that nature does nothing for the sake of an end, for that eternal and infinite Being whom we call God or Nature acts by the same necessity by which He exists; For we have shown that he acts by the same necessity of nature as that by which He exists."<sup>11)</sup>

좋음 (good) 과 나쁨 (evil) 의 구별에 있어서도 Spinoza는 주관적 감정의 소산이라고 본다.

우리가 어떤 사물이나 사태에 대해서 「좋다」든지 「나쁘다」든지 하는 느낌은 객관적 대상 그 자체의 성질을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대하는 자의 주관적 감정의 표현에 불과한 것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해서도 어떤이는 좋게 어떤이는 나쁘게 느낄 수 있다.

Spinoza는 좋음 또는 나쁨이란 느낌은 사유의 양태 (The modes of thought) 에 불과한 전혀 주관적이라는 생각이다.

Spinoza의 형이상학에 있어서는 무한하고 영원한 신 즉 자연은 도덕적 가치를 초월한 것이므로 선악을 구별할 객관적 근거는 이 세계에는 존재치 않는다. 그러나 Spinoza는 선악을 가름할 객관적 기준이 없다는 사실이 선악에 대한 구별이 전혀 무의미하다는 주장을 하지는 않았다.

11) Ibid., pt. IV, preface중에서 pp. 422-423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의지와 감정을 갖고 있는 것이 사실이며, 무한자인 신 그 자체가 아닌, 신의 양태이기 때문에 도덕적 가치의 세계에서 도피할 수 없는 것이다. 의지와 감정을 소유한 자라는 바로 그 이유 때문에 인간에게는 가치가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며, 가치의 세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다.

Spinoza가 말하려는 의도는 선악의 도덕적 가치가 인간의 욕구와 관련없이 객관적 대상 그 자체가 본래적으로 갖고 있다는, 가치의 객관적 실재성을 부인하는 것이며, 가치는 반드시 인간의 주관적 욕구와의 관련성을 통해서 발생하는 것이라는 가치의 주관성을 밝히려는 데 있는 것이다.

## Ⅱ 가치의 보편성

Spinoza는 가치의 근원을 인간성에 두었다. 인간의 욕구와 정서가 가치를 발생케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인간의 욕구와 감정은 사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그러면 선악의 도덕적 가치도 사람에 따라 상이하다는 윤리적 상대론으로 필연적으로 귀결되기 마련인 것이다.

그렇지만 Spinoza는 인간의 본성 내지 욕구가 부분적인 차이점은 있지만 원천적인 점에서 그것은 동일한 목적을 소망하는 것이라는 신념을 토대로 해서 즉 각가지 욕구는 근원에 있어서는 바라는 대상이 동일하다는 신념을 기초로 해서 보편적 도덕의 원리 즉 가치척도의 보편성을 인정하고 있는 입장이다. Spinoza는 좋음 (good) 이란 우리가 내세운 인간성의 이상 (model) 에 접근하는데 「도움이 되는것」 (a means) 을 의미하며, 나쁨 (Evil) 이란 그 이상에 도달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모든 것을 뜻한다고 보았으며, 완전 또는 불완전이라는 말도 인간의 이상에 어느정도 접근하느냐하는 차이로 구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점은 Spinoza의 윤리설에 있어서 보편적 가치척도를 설정하는데 중요한 대목이므로 그의 말을 여기에 옮겨보겠다.

“By good, therefore, I understand in the following papes everything which we are certain is a means by which we may approach nearer and is a means by which we may approach nearer and nearer to the model of human nature we set before us. By evil, on the contrary, I understand everything which we are certain hinders us from reaching that model. Again, I shall call man more or less pfect or imperfect in so far as they approach more or less nearly to this same model.”<sup>12)</sup>

이러한 Spinoza의 주장에 있어서 문제점은 인간의 이상 (model) 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인간의 이상이란 각자의 개성의 차이에 따라 십인십색일 수 있으며, 각 인간의 소망이 모두

12) Ibid., pt. IV, Preface중에서 p.423

동일하다고는 정신병자가 아닌 이상 믿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다면 결국 그의 윤리설은 Sophist와 같이 각 인간이 선악의 척도라는 결론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나 위에서 밝힌바와 같이 그는 개별적 인간이 그 이상에는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욕구의 제일의적(第一義的) 근원성은 동일한 것 이라고 보기 때문에 궁극에 있어서는 인간의 이상은 같다고 보았다.

인간의 이상이 동일하다면 보편적 도덕의 원리가 설정됨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Spinoza의 윤리학의 요석(要石)은 동일한 인간의 이상을 밝히는 일이다.

그는 그 이상이 무엇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그의 인성론에 토대를 두었다.

고로, Spinoza의 심리학을 먼저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윤리학>의 제 3 부는, 제 4 부에 나오는 일부의 명제들과 더불어 Spinoza의 심리학 특히 그의 윤리학의 수립에 관건이 되는 심리학설을 표명하고 있다.

Spinoza는 자연계의 모든 유한한 사물은 제각기 자기의 존재를 지속시키고자 힘쓴다는 「자기보존의 욕구」를 주장했다.

“Each thing, in so far as it is in itself, endeavours to persevere in its being.”<sup>13)</sup>

그는 「자기보존의 욕구」는 실체의 양태인 유한한 사물의 필연성이며, 자기보존의 노력은 사물의 본질 이외의 아무것도 아니라고 했다. 이 근본적 노력은 심적 측면에 있어서는 욕구라고 한다.

Spinoza는 자기보존의 원리를 물질현상 뿐 아니라 정신현상에 까지도 적용했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서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즉 그는 물질현상과 정신현상은 같은 실체의 두 측면이기 때문이다. 그는 정신도 역시 영원한 자기보존에 힘쓰며 또 그 노력을 의식한다라고 말한 것은 당연하다.

“The mind, both in so far as it has clear and distinct ideas, endeavours to persevere in its being for an indefinite time, and is conscious of this effort.”<sup>14)</sup>

그에게 있어서는 욕구 또는 의지라는 것도 자기보존의 자의식에 불과한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에게 천차만별의 다양성을 띄우고 나타나는 인간의 각가지 욕구나 의지도 결국은 자기보존을 궁극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인간의 이상도 각자의 개성에 따라 판이한 양상으로 나타나지만 「자기보존」이 그 목표라는데는 동일성을 갖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인간의 이상」이 같다는 점이 밝혀졌으므로 Spinoza에 있어서는 보편적 도덕의 원리가 설정될 수 있다는 것이 확실해진 셈이다.

13) Ibid., pt. II, pro. 6, p. 398

14) Ibid., pt. II, pro. 9, p. 399

Spinoza의 입장에서 본다면 모든 인간이 바라는 「인간의 이상」은 자기보존을 성실히 실현성 취시켜 나가는 사람이다.

이와같이 Spinoza에게는 보편적 가치의 척도가 되는 보편적 「인간의 이상」이 밝혀진 이상, 선악에 대한 판별은 쉽게 결론지워질 수 있다.

<자기보존의 노력을 증대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은 선이요 그 반대되는 모든 것은 악이다.>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야 할 점은 인간이 자연적 필연성으로서 반드시 갖게되는 자기보존의 욕구를 현재의 자연과학적 사고의 틀을 적용해서 안된다는 점이다.

Darwin의 생물학적 진화론에서 주장하듯이 종족유지의 욕구라든가 생존경쟁을 진화의 원리로 보는 현대 생물학적 사고의 발상법을 적용해서 Spinoza의 자아 보존의 원리를 해석해서는 안된다.

그가 모든 사물은 자기보존의 욕구를 가졌다고 말했을 때 그것은 “밖으로부터 원인이 작용하지 않는한 개물은 파멸될 수 없다.” (A thing cannot be destroyed except by an external cause.)<sup>15)</sup>는 명제 IV와 “서로 부정하는 두개의 개물은 본질이 다른 두가지 사물이며 따라서 동일한 주체 안에서 공존할 수 없다.”

(In so far as one thing is able to be destroy another are they of contrary natures; that is to say, they cannot exist in the same subject.)<sup>16)</sup>는 명제 V로부터 나온 논리적 귀결인 것이다.

Spinoza가 인간의 이상을 발견하려는 논리적 근거로서 「자기보존」을 내세운 것은 생물학적이기 보다는 형이상학적 의미로 이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Spinoza가 말하는 「자기보존」의 뜻은 자기행동의 원인이 바로 자기자신에서 기인되는 것 즉 자기의 내적 원인으로 부터 행동함을 의미한다.

나의 행동이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고 자기 스스로의 내적 원인에 의해서 움직여 나간다는 뜻이다.

인간의 행위를 대별하면 능동적 행위와 수동적 행위로 나눌 수 있다. 능동적 행동은 자발적인 것으로 외적인 간섭을 받지않는 적극적 행동이요, 수동적 행동은 썩은 나무토막이 물결 따라 흘러가듯 외적인 것에 지배되어 이끌려가는 소극적 행동을 뜻한다.

Spinoza는 이 능동적 행위가 자기의 본질을 지키는 「자기보존」의 행동이라고 본다. 그는 능동적 행동만이 자기자신의 본성과 힘을 나타내며, 수동적 행동에 있어서는 사람은 외적인 작용의 노예라고 믿었다.

15) Ibid., pt. II, pro.4, p. 398

16) Ibid., pt. II, pro.5, p. 398

한마디로 말해서 Spinoza에 있어서는 자기보존을 유감없이 지켜나가는 「인간의 이상」은 바로 「자유인」이다.

그러므로 Spinoza의 가치척도는 자유인이며, 자유인이 되는데 방해가 되는 행동은 수동적 행동으로 악이며, 능동적 행동만이 선이라는 결론이 나온다.

또한 「자유인」과의 거리를 가지고 완전한 인격 또는 불완전한 인격, 유덕한지, 부덕한지, 행복한 자인지 불행한 사람인지 하는 모든 평가적 판단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그렇다면 「자유인」이 되는 방도는 무엇인가?

Spinoza는 누구나 적합한 관념 (adequate ideas) 을 획득하여 스스로 자기행동의 충분한 원인이 되기만 한다면, 그는 정신을 산란케하는 주위의 총동에 의하여 허둥되지 않고 자기 자신의 성숙한 힘과 생생한 정력을 발휘하는 능동의 주체가 된다고 보았다.

즉 적합한 관념 (adequate ideas) 을 가질수록 「자유인의 이상」에 접근할 수 있고 부당한 관념 (inadequate ideas) 을 가질수록 자유의 이상으로 부터 멀어지는 것이다.

“Our minds acts at times and at times suffers:in so far as it has adequate ideas, it necessarily acts:and in so far as it has in adequate ideas, it necessarily suffer.”<sup>17)</sup>

그러므로 진리의 인식이 곧 자유의 실현이며, Spinoza에 있어서는 이론적 인식이 동시에 도덕적 실천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적합한 관념이란 어떠한 것을 말하며 어떠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유의 길이 보장되는 것인가?

그것을 밝히려면 Spinoza의 인식론에 대한 간략한 해명이 필요하다.

그는 인간의 지식에는 세층의 단계가 있다고 주장한다.<sup>18)</sup>

(1) 속견 (2) 과학적 인식 (3) 직관지가 바로 그것이다.

(1) 속견은 인식의 가장 낮은 단계이며 감각에 기초를 둔 것으로 그것은 광대하고 복잡한 대자연의 체계를 이해하는 척도가 아니다.

(2) 과학적 지식은 모든 유한한 양태의 부분적 양상 또는 개체의 부분적 상호관계를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모든 부분과 전체에 공통되게 퍼져있는 「연장」을 반영하는 「공통관념」을 뜻한다.

여기서 유의해야할 점은 그의 과학적 지식은 오늘날 말하는 경험적인 인식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수학과 역학의 기본관념이 되는 것으로 합리론적 체계에서 연역되는 지식을 뜻한다.

(3) 직관지는 최고단계의 지식으로 모든 존재의 전체계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말한다.

17) Ibid., pt. II, pro. 1, p.396

18) Ibid., pt. II, 참조 Spinoza는 여기서 정신과 물체의 관계 및 인식론에 관한 견해를 피력했다.

적합한 관념인 과학적 인식을 가질 때 자유인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과학적 인식의 성격에 비추어 볼 때 저절로 명백해진다. 즉 과학적 지식은 내몸 및 모든 물체의 공통적 특성인 연장을 반영하는 관념인 만치 그것은 신 즉 자연 전체의 본질인 동시에 나 자신의 본질이기도 한 것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적합한 관념의 계기만으로 움직일 수 있다면 그 순간에 내마음의 결정은 오직 내 자신의 본질 뿐인 것이다. 고로 나밖의 것에 의하여 내마음의 간섭을 받은 바 없으므로 그때의 나의 행동은 능동의 주체로서 곧 자유이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의 이상을 실현하는 길은 직관지를 가질 때만 가능한 것이다. 직관지는 자연전체를 하나의 통일된 체계로서 파악하는 것으로 나와 너의 구별을 초월한 신 즉 자연자체가 가지는 지식이다. 그것은 인간이 접근할 목표이며 이상인 것이지만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하다. 인간은 자기와 신을 어느 정도까지 동일시 할 수 있느냐, 즉 자기의 외연을 얼마나 확대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 자유의 완전성에 가까워지기도 하고 멀어지기도 한다.

나의 외연을 완전히 신과 일치시킬 수 있으면, 그 순간의 나는 곧 신이므로 신 즉 자연 이외에는 아무 것도 존재치 않기 때문에 완전히 자유이다.

자연전체를 하나의 주체로 볼 때 그것은 필연인 동시에 자유이다.

Spinoza의 직관지는 비록 우리가 완전히 달성하기를 기대하지 못할지라도 어떠한 생활이 인간을 위한 값진 생활 인지를 분명히 밝혀주는 지혜의 등불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적 이상에 접근하려던 우리는 참으로 이성적으로 되어야 한다. 그러나 인간은 감성을 갖고 있으므로 완전히 이성적으로 될 수 없다는 점이 인간의 한계성이며 비극인 것이다. Spinoza에 의하면 우리가 영위해야 할 값진 인생은 능동적인 생활 즉 스스로가 자기 행위의 원인이 되는 자유로운 생활이었다. 그러나 Spinoza도 이러한 인생을 실현하기는 힘들다고 보았다. 인간은 감성적 동물인한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누구에게나 약간의 부적합한 관념은 아니 가질 수 없는 것이다. 인간은 유한한 존재로서 생애에 대한 완전한 주인공은 될 수 없다.

인간의 불완전성을 Spinoza는 겸허한 자세로서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그 뜻을 나타내주는 Spinoza의 표현을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It is impossible that a man should not be a part of nature, and that he should suffer no changes but those which can be understood through his own nature alone, and of which he is the adequate cause.”<sup>19)</sup>

Spinoza는 모든 불행과 고뇌는 「수동」이며, 고로 부당한 관념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된다고 믿었다.

19) Ibid., pt. IV, pro. 4, p. 425

모든 사태를 영원의 광명을 통하여 직시할 때 괴로움 따위의 정서는 질적인 변화를 가져온다. 우리가 만사를 존재의 전체계와 관련해서 이해할 때 우리의 감각과 감정은 질적인 변화를 초래한다. 예컨대 죽음, 고통, 모욕 등의 감정도 자연계의 유한자에게 주어진 운명이라는 것을 이해한다면 즉 모든 사건이 자연의 필연적 법칙을 따라 생겨나는 것이라고 보면은 괴로움의 정념에서 해탈될 수 있다.

“There is no affection of the body of which we cannot form some clear and distinct conception.”<sup>20)</sup>

“In so far as the mind understands all things as necessary, So far has it greater power over the affects, or suffers less from them.”<sup>21)</sup>

뉘어서 말하면 인생이 경험하는 모든 불행의 원인은 첫째 전체의 진상을 파악치 못하고 부분적인 것을 독립된 실체로 오인하는 무지와 둘째 자연의 체계가 필연적 법칙의 지배하에 있음을 간과한 무지에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물을 영원의 상(相)에서 직시할 때 우리는 모든 정념과 번뇌에서 자유로울 수 있으며 고요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다. 자연을 신적 관점에서 관조하는 것은 인간의 가장 완전한 능동적 활동이므로 말할 수 없는 즐거움도 그에 수반되어 일어난다.

그 즐거움은 곧 만물을 신에 관련시켜 인식하는 데서 나타나는 것이므로 그것이 신에 대한 사랑이 된다.

“The mind can cause all the affections of the body or the image is connected, the more frequently does it present itself.”<sup>22)</sup>

“The greater the number of objects to which an image is related, the more constant is it, or the more frequently does it present itself, and the more does it occupy the mind.”<sup>23)</sup>

신의 사랑은 즉 신의 인식이다. 그리고 그것은 무미건조한 이론을 구명하는 인식도 아니고 또 은총의 보수를 베풀기 위한 사랑도 아니며 참으로 자연의 이법에 자기가 몰입하고 일체의 정념에서 해방된 인생의 최고 형태이다.

신을 사랑하는 데서 번뇌의 파도는 잠들며, 평화의 미풍은 시원하게 마음의 바다를 넘나들 것이다. 이것이 진정한 마음의 자유요, 평화이며 안식이다.

20) Ibid., pt. V, pro.4, p. 453

21) Ibid., pt. V, pro.6, p. 453

22) Ibid., pt. V, pro. 14, p. 456

23) Ibid., pt. V, pro. 11, p. 456

이와같이 완전한 덕인 신에 대한 지적인 사랑은 진실로 극치의 행복이다.

Spinoza에 의하면 행복은 덕의 보수가 아니라 덕 그 자체인 것이다.

“최고선은 신에 관한 지식이요, 최고의 덕은 신을 인식하는 것이다.”

(The highest good of the mind is the know ledge of God, and the highest virtue of mind is to know God.)<sup>24)</sup>

## VI 비 판

Spinoza의 윤리설에 대한 비판은 그의 핵심적 근간이 되는 점에 국한해서 그의 이론의 장점은 제외하고 난점만을 논하고자 한다.

(1) Spinoza의 윤리설은 한마디로 그의 형이상학의 토대위에 설정된 형이상학적 윤리설이다.

그러므로 그의 윤리설도 종래의 형이상적 윤리설이 가지는 공통된 난점을 내포하고 있다.

현대 Meta-ethics에서 상세히 분석 비판한 바와 같이 행위의 시비선악에 관한 윤리학적 원리는 실재(reality)에 관한 형이상학적 원리로 부터 간접적으로 추론될 수 없는 것이다.

Spinoza는 우리들이 지각하는 유위변전하는 삼라만상은 무한하고 영원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의 양태로서 유한한 것이다. 유한한 개체(양태)는 독립된 실체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며, 전체의 부분으로서만 존재의 의미를 가진다.

모든 사물은 자연의 전체적 체계의 논리적 필연성에 따라 생멸한다. 물질 현상에 있어서 우연이라 든지, 정신현상에 있어서 자유의지란 결코 존재치 않으며 냉엄한 자연의 법칙의 고정된 노선을 따를 뿐이다. 정신과 물체는 동일한 실체의 두측면으로 표현양식의 상이에 불과한 것이며 전혀 하나인 것이다.

이와같이 Spinoza의 세계인 자연의 체계는 불가치적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한한 개체중의 하나인 인간의 본성에 의거하여 가치의 필연적 발생을 논하고 있다.

인간의 욕구와 감정은 실체의 양태로써 유한한 것이로되, 그것은 인간이 필연적으로 갖게 되는 것인 만치 인간은 가치의 세계에서 탈피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욕구와 감정을 갖고 있는 인간도 무한한 실체인 신 즉 자연의 양태이기 때문에 자연의 체계의 일부자인 이상, 자연의 전체계가 불가치적이라면 자연의 분자인 인간의 본성에 가치의 근원을 설정하는 것은 논리적 모순이다.

그러므로 reality에 관한 형이상학적 원리를 토대로 해서 가치에 관한 윤리학적 원리는 추론될 수 없다. 다시말하면 Sein에 관한 원리로 부터 Sollen에 관한 원리는 근본적으로 도출해낼 수 없는 논리적 모순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24) Ibid , pt.Ⅳ. pro.28, p.431

(2) 다음에 이론적 난점으로서 들수 있는 점은 가치척도로서 설정한 자아보존의 원리이다. 그는 자아보존의 욕구는 모든 유한한 개체가 가지는 필연성이라고 보았다.

인간도 유한한 개체의 일종이므로 따라서 자아보존의 욕구를 가졌다.

그런데 Spinoza는 자아보존의 욕구를 필연성으로 인정하면서 인간의 이상으로 삼고 있다.

이상이라면 우리가 애써서 도달할 목표요 그 목표의 달성을 위해서는 자유의지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Spinoza는 자유의지를 부인하면서 우리가 진력해야할 이상을 설정하는 것은 자가당착이다. 저절로 가만히 있어도 모든 인간이 필연적으로 본성상 자기보존을 하기 마련이라면 구태어 이상이니 목표니 하는 것을 설정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3) 세째번 난점은 자아보존이라는 인간의 이상 즉 자유인이 되는 방도로서 이성적 인식을 들고 있는 점이다.

Spinoza는 능동적 행동만이 자기보존을 실현하는 길이며 자유인에 접근하는 방도이다. 능동의 주체가 되려면 타당한 관념 즉 이성적 인식을 갖는 일이다. 이성적 인식은 능동의 주체가 되는 힘으로서 곧 덕이다.

그는 인간의 행동을 능동적인 것과 수동적인 것으로 구분하고 능동적 행동의 우위성을 인정하고 있다.

능동적 행위는 내적인 원인에 기인하는, 외부로부터 간섭을 받지 않는 행위요, 수동적 행위는 외부의 간섭에 좌우되는, 외적 원인에서 비롯되는 행위이다. Spinoza는 인간의 행위를 필연적 법칙의 예속하에 두면서 즉 인간의 본성은 예외없이 필연성의 패도에서 탈선 할 수 없으며 그 자체의 내적 필연성의 발현이라고 주장하면서, 외적 원인으로 부터 기인되는 수동적 행동을 인정함은 자기모순이다.

Spinoza적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행동은 내적 원인으로 부터 비롯되는 능동적 행동만이 가능한 것이다.

또한 Spinoza는 수동적 행동은 감성적 행동을 뜻하고, 능동적 행동은 이성적 행동을 뜻했다. 그래서 그는 감성과 이성의 대비에 있어서 이성의 우위성을 인정하는 이성론적 입장을 취했다.

감상적인 것은 괴로움의 인자(因子)이며 이성적인 것은 기쁨의 인자이다.

그는 이성에 의한 감성의 지배를 능동이라 보았고, 감성에 의한 이성의 예속을 수동이라 생각했다.

이러한 발상법은 회랍적 사고의 색채가 농후한 것으로 이성적 인간을 인간의 이상으로 내세운 Platon을 비롯한 Aristoteles 또한 Stoa적 사상의 유형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Spinoza가 내세운 인간의 이상인 자유인은 Stoa의 현인 처럼 이성이 감정과 정념을 억제 지배



하는 내재적 자유를 뜻한다. 그러나 Spinoza적 논리에 의한다면, 이성과 감성의 우열이나 차등은 있을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과 감성도 유일한 실체의 속성인 사유의 양태들(modes)이기 때문이다.

고로, Spinoza가 자유의 이성에 이르는 방법으로 이성적인 이론적 인식만이 능동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즉 이성만을 인간본성의 특성으로써 감성의 뒷자리에 올려놓을 논리적 근거는 없는 것이다.

(4) Spinoza는 이성에 있어서 실천적인 것과 이론적인 것이 구별은 없고 이론적 인식은 곧 장 도덕적 실천이 된다. 영원성에의 접근은 진리에의 접근이며, 지식의 소유는 곧 자유의 보장이 된다. 이러한 생각은 Spinoza적 입장에서는 필연적 귀결이다.

그러나 자유인의 이상 즉 영원성에의 접근은 지자(知者)만이 가지는 특권이나 전유물은 결코 아니다.

지식과 덕의 일치를 주장하는 Spinoza의 사상은 Socrates의 사상과 동공이복으로 주지주의적인 색채가 짙다.

한마디로 표현해서 Spinoza의 윤리학은 대중적이 아닌 오직 극소수의 지자(知者)나 학자만이 누리는 신기루이다.

(5) 끝으로 그의 윤리사상의 난점은 인간의 존재를 길가의 잡초나 돌맹이와 차등이 없이 유일한 실체의 양태로서 간주해버린 점이다. 그것은 그의 형이상학에 의한 필연적인 결론이긴 하나 인간의 존재방식은 사물의 존재구조와 본질적으로 상이한 것이다. 그저 던져진 상태에 머물어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기투(Entwurf)하는 가능성 존재요, 행동적 존재이다.

Spinoza가 인간의 존재를 보편속에 해소시킨 것은 그 의도가 우주적 인격을 권장하는데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인간이 가치를 자연물과 동일시함은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무이한 단독자인 인간의 존엄성을 경시한 감이없지 않다.

#### — 참 고 문 헌 —

- 1) Spinoza: Ethics, Great Book, BK.31, Encyclopedia Britannica, Inc., Chicago, 1952
- 2) S.P.Lamprecht: Our Philosophical Traditions, New York, 1955
- 3) B. Russell :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American Book—Stratford Press, Inc., New York, 1959
- 4) W. T. Jones : A History of Western Philosophy, New York, 1952
- 5) W. Durant : The Story of Philosophy, the Pocket Library Press, New York, 1958
- 6) 김태길: 윤리학, 박영사, 서울, 1964

## — Summary —

## A Study on the Ethical Theory of Spinoza.

## — Especially on the principle of Value —

Lee Hee-ju

The gist of "Ethics", one of the most remarkable works of Spinoza, may be considered from three aspects : (1) metaphysics, (2) psychology, and (3) Ethics. The essential point brought out in this study is how to formulate the principle of value from an ethical standpoint.

## 1) Introduction of the Subject.

This chapter presents that purpose of this article which is to inquire in to the process of the establishment of the univesal principle of value from the standpoint of an ethical theory of relativity with considerable emphasis on subjectivity of value.

## 2) Relativity of Value :

In this chapter, the process of Spinoza's demonstrating subjectivity of value based on his metaphysics is studied.

Spinoza took the position that there is but one substance, and that the one and only substance is "God" as well as nature.

The universe that itself is "God or Nature" works according to the natural law of cause and effect.

All the objects that we perceive are modes of God, unique substance. Nothing finite is Self-subsistent.

According to Spinoza's assertion that the system of nature is subject to the natural law, his world has no connection with value.

Therefore, the standard of value is not to be established in an objective world from his view of point, but to be inevitably set on the basis of human subjectivity.

Value of Good and Evil is recognized only when human beings view it from a subjective point of view.

Everything, according to Spinoza, is ruled by an absolute logically necessity. There is no such thing as free will in the mental sphere or chance in the physical world.

Everything that happens is a manifestation of God's inscrutable nature, and it

is logically impossible that events should be other than they are.

Spinoza's metaphysics is the best example of what may be called logical monism... the doctrine, namely, that the world as a whole is a single substance, none of whose parts are logically capable of existing alone. The appearance of evil arises only from regarding parts of the universe as if they were self-subsistent.

### 3) Universality of Value :

The heart of questions as to Spinoza's Ethics is studied in this chapter. Spinoza, while recognizing subjectivity of value, brings forward the universal principle of morality.

He reached at the conclus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Self-Preservation", that a Free Man is the measure of the universal value.

Consequently, the heart of Spinoza's Ethics can be said to be a theory of the way to be a free man.

The way to be a free man can be found when one forms an adequate idea for the purpose.

By such an adequate idea, we understand the divine which, in so far as it is considered in itself, without reference to the object, has all the properties or internal signs of a true idea.

The adequate idea means rational intelligence with which he, as a rationalist, gives weight to reason.

4) Criticism : Five logical contradictions in his theory are pointed out here, aside from his theoretical merits.